

# 『黃帝內經』과 『樂學軌範』의 五音과 五聲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白裕相<sup>1</sup> \* · 張祐彰<sup>1</sup>

## A Study on O-eum(五音) and Oseong(五聲) i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and 『Akhakgwebeom(樂學軌範)』

Baik You-sang<sup>1</sup> \* · Jang Woo-chang<sup>1</sup>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At first, we explained concepts of Oseong(五聲) in 『Akhakgwebeom(樂學軌範)』 and then compared them with O-eum(五音) i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In that progress we can have recognized the commonnes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texts, and became familiar with ideas of sounds in minds of ancients. That ideas are concerned with true nature of human and cosmos.

Based on that ideas, we could return to stasis of mutual understanding with each other, it means a condition of harmony. For that purpose we must understand detail meanings of O-eum(五音) and Oseong(五聲), and this analysis lead clinical music therapy to do an important thing as methodology of treating human body and minds.

The ideas of O-eum(五音) in 『Akhakgwebeom(樂學軌範)』 are not exactly corresponded to vocalization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 that is Korean characters, and Oseong(五聲) i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But this dissonancy is a problem of methodology, on the contrary, there are many common concepts and possibilities of application to practical uses between them.

**Key Words** : o-eum(五音), oseong(五聲), music therapy, Hwangjenaegyong(黃帝內經), Akhakgwebeom(樂學軌範)

## I. 서론

광활한 宇宙 속에서 無를 바탕으로 의식이 자리 잡고 동시에 온갖 기운이 혼연일체가 되어 돌아갈 때, 의식은 자기모순에 의해 분화되기 시작하고 그것은

각각 하나의 씨앗이 되어 생명을 탄생하게 한다. 이러한 씨앗이 극점이 되고 여기에 氣가 붙어서 변화 발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情이 싹튼다. 『樂學軌範』에서는 『樂書』의 내용을 해석하여 “夫物生而有情, 情發而爲聲.”<sup>1)</sup>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情은 마음속에 싹이 트는 것[靑]으로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다. 즉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반드시 소리를 내게 되

\* 교신저자 :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E-mail : baikys@khu.ac.kr Tel : 02) 961-0326,  
접수일(2008년 7월 28일), 수정일(2008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14일)

1) 이혜구. 신역악학개범. 서울. 국립국악원. 2000. p.971.

어 있다는 것이다. 마치 생명이 탄생할 때 껍질이 깨지면서 울음소리부터 나오듯이 모든 소리, 음성, 언어 등이 모두 바로 생명의 시작이며 생명 현상 자체인 것이다.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는 표현들로는 소리 이외에도 색깔과 춤이 있다. 색은 빛을 통하여 자신이 살아서 존재하고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며, 춤은 정신과 육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무의식 속에 잠겨되어 있는 우주의 리듬을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살아있음을 표출하는 것이다.

張介賓은 『類經圖翼』에서 “樂者, 天地之和氣也.”<sup>2)</sup>라고 규정하여, 陰陽의 기운이 서로 합하여 和의 象을 이루는 것이 생명 현상의 절정임을 설명하였다. ‘和’란 바로 오랜 기간 동안 애써 노력하여 기르고 자라서 가을에 낱알을 이루어 잘 익은 후에[禾] 그 곡식을 수확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서[口], 나와 남 서로 간에 따뜻한 마음이 통하는 象을 가지고 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이러한 생명의 본질에 대해 직관하여 통찰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으로 회귀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陰陽五行의 분화 및 통일성을 알아내었다. 소리에 있어서도 聲과 音 모두 陰陽五行의 변화가 그 속에 담겨져 있으며 그 분화된 象을 통하여 생명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樂學軌範』에 나오는 五音 또는 五聲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고 재해석해 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黃帝內經』 및 여러 주석가들의 의학적 관점과 대비하여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또한 그러한 관점의 차이는 어떠한 의미로서 인식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간과 우주의 본질에 대하여 통찰하였던 옛 사람들의 생각을 더듬어 보면서 현재 우리에게 소리라는 생명현상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 II. 본 론

### 1. 音과 聲의 차이

소리는 사람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그 중

2)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대성문화사. 1982. p.252.

가장 원초적인 상태를 聲이라 한다. 『禮記樂記』에서 “凡音之起, 由人心生也. 人心之動, 物使之然也. 感於物而動, 故形於聲. 聲相應, 故生變, 變成方, 謂之音. 比音而樂之, 及干戚羽旄, 謂之樂.(무릇 음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외물이 그렇게 만든다. 물에 감응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따라서 소리가 형성된다. 소리가 서로 응함에 따라서 변동<sup>3)</sup>이 생기고, 변동이 고정된 것[方]을 음이라 이른다. 음을 어울려 연주를 하고 함께 방패와 무기를 흔들고 깃발을 휘날리는 것을 악이라 이른다<sup>4)</sup>.”<sup>5)</sup>라고 하여 聲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장 원초적인 소리라고 설명하였다.

『黃帝內經』에서는 사람의 五聲을 木, 火, 土, 金, 水의 순서에 따라 呼, 笑, 歌, 哭, 呻이라 하였으며 五音은 角, 徵, 宮, 商, 羽라고 설명하였다. 聲은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으며 원초적으로 발현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으며, 音은 일정한 규율에 따라 높낮이와 음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呼, 笑, 歌, 哭, 呻을 살펴보면, 부르는 소리[呼], 웃음소리[笑], 노래 소리[歌], 울음소리[哭], 신음 소리[呻] 등으로 사람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원초적인 소리들이다.

이 가운데 노래 소리[歌]가 일정한 音을 사용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으나 여기서 노래 소리란 歌詞가 들어있는 것으로서 즉 고대의 詩歌에 가깝다. 중앙 土는 의식의 자리로서 생각이 썩트는 곳인데[思]<sup>6)</sup>, 그러한 의식을 언어로 표현하여 가사로서 노래에 담은 것이 바로 歌이다. 부르는 소리 呼는 기운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성을 말해주는 한편 고립된 존재로 태어난 인간 자신이 타자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마음이 처음 썩트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初發心

3) 여기서 變動이란 원초적 소리인 聲이 서로 만나서 내부적인 변화를 일으켜 후천적으로 새로운 소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陰陽의 父母가 만나서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은데 이때 만들어지는 소리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고정됨으로써 音으로 만들어진다.

4) 음악은 연주하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노동, 놀이, 행사 등에 쓰여져야만 본연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5) 富山房編輯部. 禮記. 東京. 富山房. 1913. 卷19 p.1.

6) 思는 생각이 나오는 밭[田]으로서 인간의 의식을 상징하며 한편으로 일정한 규율과 틀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의 합리성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웃음소리는 마음의 기쁜 상태를 나타내는 원초적인 소리이며 울음소리는 반대로 슬픈 마음을 나타낸다. 신음 소리呻은 기운이 안으로 갈무리되어 굳게 닫혀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새어나오는 소리로서 事物을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아낀대[愛]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나 기운을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여 조심스럽게 소리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이다.

五音 角, 徵, 宮, 商, 羽는 調를 말하며 각각에 실제 음들이 배속되어 있으나 본래는 음의 象을 나타낸 것으로서 五行 變化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黃帝內經』에서는 五音의 五行 배속을 기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 王冰, 馬蒔, 張介賓 등이 주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선 『樂學軌範』에 나오는 五聲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五音의 象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樂學軌範·五聲圖說』에 나오는 五聲에 대한 해석

『樂學軌範』은 서문에 의하면 성종 24년 1493년에 撰定되었다고 하며 당시 예조판서인 成倪이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sup>7)</sup>. 『樂學軌範』을 지은 목적은 掌樂院에 있던 의례와 악보가 오래되어 헛었고, 요행히 남은 것들도 모두 소략하고 틀려서 그것을 讎校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총 9권 3책으로 되어 있으며 蔡元定의 『律呂新書』나 丁若鏞의 『樂書孤存』과 같이 순수 이론 서적이 아니라 실제 음악 교육과 연주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서적이었다<sup>8)</sup>. 이 가운데 「五聲圖說」부분에 宮, 商, 角, 徵, 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며 사람의 發聲이 五聲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원문과 해석은 이후 내용과 같으며, 참고로 『黃帝內經·陰陽應象大論』에 대한 王冰 주석과 『黃帝內經·六元正紀大論』에 대한 馬蒔의 주석을 함께 비교하여 보았다.

樂書云, 夫物生而有情, 情發而爲聲. 故天五與地十合而生土於中, 其聲爲宮. 地四與天九合而生金於西, 其

聲爲商. 天三與地八合而生木於東, 其聲爲角. 地二與天七合而生火於南, 其聲爲徵. 天一與地六合而生水於北, 其聲爲羽.

[解釋] 악서에서 이르기를, 무릇 만물이 생하면 반드시 정을 가지고 있으니 정이 펼쳐지면 소리가 나온다. 그러므로 하늘의 오와 땅의 십이 합일하여 중앙에서 토를 생하니 그 소리가 궁성이고, 땅의 사와 하늘의 구가 합일하여 서방에서 금을 생하니 그 소리가 상성이고, 하늘의 삼과 땅의 팔이 합일하여 동방에서 목을 생하니 그 소리가 각성이고, 땅의 이와 하늘의 칠이 합일하여 남방에서 화를 생하니 그 소리가 치성이고, 하늘의 일과 땅의 육이 합일하여 북방에서 수를 생하니 그 소리가 우성이다.

모든 物物은 情<sup>9)</sup>을 가지고 있는데 이 情이 싹터서 밖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소리를 내게 된다. 또한 이것을 天과 地의 合一로 설명하였는데 天數는 生數로서 無形의 原理에서부터 싹이 터서 나오는 것이며 地의 成數는 完성을 의미하여 形質을 갖추고 五行이 돌아가는 것의 상징한다. 이러한 陰陽 表裏의 조화가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宮, 中也. 居中央, 暢四方, 唱始施生爲四聲綱也. 其性圓. 其聲若牛之鳴窳<sup>10)</sup>而主合, 宮無爲而覆物, 君之象也, 足以御臣. 其聲雄洪, 調<sup>11)</sup>則政和國安, 亂則其國危. 其絲數八十一, 三分損一<sup>12)</sup>下生徵.

9) 情의 의미는 마음속의 싹과 같다. 이 싹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는데 이것이 소리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10) '움, 움집, 간직하다'의 의미임.(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2340.)

11) 여기서 조화와 어지러움의 의미를 살펴보면, 조화는 남과의 관계 즉 다른 소리와 의 균형과 어울림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기 내면의 五行 調和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하나의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五行의 특성이 함께 조화를 이룬 후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소리의 조화와 어지러움에 따라서 사회가 변한다는 생각은 音樂의 成果가 인간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인식한 것이다.

12) 三分損益法 중 三分損一法을 말한다. 三分損益法은 三分損一法과 三分益一法으로 구성되는데 三分損一法은 律管의 길이를 셋으로 나누어 그 중 하나를 제거하고 남은 2/3로서 다음 차례의 音律을 구하는 방법이다. 三分益一法은

7) 이혜구. 신역악학개범. 서울. 국립국악원. 2000. p.7.

8) 이혜구. 신역악학개범. 서울. 국립국악원. 2000. p.8.

[解釋] 궁은 가운데이다. 중앙에 거처하여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울리기 시작하여 만물을 베풀어 생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사성의 버리가 된다. 그 성질은 등글다. 그 소리는 소가 움집에서 우는 것과 같아서 함을 주로 한다. 궁은 일부러 하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덮고 있으니 임금의 상으로 죽히 신하를 부릴 수 있다. 그 소리는 웅장하면서 넓은데, 조화를 이루면 정치가 화합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어지러우면 그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그 실의 수는 팔십일이고 삼분손 일하여 아래로 치성을 생한다.

宮聲을 君에 배속한 것은 土德을 萬物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五行 중에서 중앙에 위치하여 나머지 木, 火, 金, 水를 통솔하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無爲의 정치를 행하면서 萬物을 감싸주고 있는 것이 하늘의 象인데<sup>13)</sup> 보이지 않는 은혜로써 덮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임금의 象이 나타난다. 즉, 이러한 보이지 않는 大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신하를 부릴 수 있으며, 만약 신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sup>14)</sup>.

宮의 소리는 남성적이고 넓고 크다고 하였는데 바리톤과 같은 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남성적이라는 雄은 반드시 강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안으로 부드러운 면을 가지고 있다. 소의 울음소리도 부드럽고 울음 앞에서는 울고 있다는 것도 은은함을 말해준다. 마치 土의 胃氣가 五臟의 眞藏氣를 감싸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sup>15)</sup>. 또한 습은 완전

반대로 본래 길이에 1/3을 더하여 4/3로 만들어 다음 차례의 音律을 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黃鐘을 三分損一하여 林鐘을 얻고 다시 林鐘을 三分益一하여 太簇을 얻고 다시 太簇을 三分損一하여 南呂를 얻는 식으로 12律을 모두 만들어 낸다.

13) 天覆地載라 하여 하늘은 萬物을 감싸주고 땅은 萬物을 실어준다는 의미이다.

14) 『孟子』(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188.)에서 “故將大有爲之君, 必有所不召之臣. 欲有謀焉, 則就之. 其尊德樂道, 不如此不足與有爲也.”라 하여 장차 큰 일을 하려는 임금은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신하를 두어야 하며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에 비로소 신하를 부른다고 하였다.

히 닫힌 閉藏의 의미가 아니라 통합의 의미로서 萬物을 감싸 안고 있는 상태이다.

宮聲으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는 나라가 안정되는 것 같고 어지러워질 경우에는 마치 나라가 위태로운 것과 같다고 하였다.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은 평소 보이지 않는 宮聲의 밑바탕이 사라져 버려서 백성들이 근본적인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黃帝內經陰陽應象大論』의 주석에서 王冰은 “宮謂土音, 大而和也. 樂記曰宮亂則荒其君驕.”<sup>16)</sup>라 하여 宮음이 크고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만약 어지러워지면 임금으로 하여금 쾌락에 빠뜨리고 교만하게 만든다고 하였다<sup>17)</sup>. 馬蒔도 『黃帝內經六元正紀大論』의 주석에서 “宮, 中也. 中和之道, 無往而不理”<sup>18)</sup>라 하여 中과 和를 모두 말하였는데 이는 『中庸』에서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라 말한 것으로써 宮음이 喜怒哀樂의 未發과 已發 사이에서 調和를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徵, 祉<sup>19)</sup>也, 物盛大而繁祉也. 其性明而辨物. 其聲若豕之負駭而主分, 徵出無而驗有, 事之象也, 足以成物. 其聲倚倚嘖嘖然, 調則百物理, 亂則庶績<sup>20)</sup> 隳<sup>21)</sup>. 其絲數五十四, 三分益一上生商.

[解釋] 치는 복이다. 물물이 성대하여 번성하고 복

15) 『黃帝內經陰陽別論』(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1.)에서 “所謂陰者, 眞藏也, 見則爲敗, 敗必死也. 所謂陽者, 胃脘之陽也.”라 하여 眞藏氣와 胃氣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胃氣가 바로 土의 기운으로서 五臟의 精氣를 감싸주는 것이다.

16) 金達鎬. 補注注解素問(上). 서울. 의성당. 2001. p.126.

17) 『孟子』(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74.)에서 “從流下而忘反謂之流, 從流上而忘反謂之連, 從獸無厭謂之荒, 樂酒無厭謂之亡.”라 하여 임금의 사냥 등의 놀이에 빠진 것을 荒이라 하였다.

18) 馬元臺,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p.551.

19) 하늘의 神이 내려주는 복을 말함.(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2270.)

20) ‘있다, 계승하다’ 또는 無形으로 이어져 오는 전통이나 공로를 말함.(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2517.)

21) 『국역악학계법』(민족문화추진회. 서울. 민문고. 1967. p.46.)에서 무너질 ‘隳’로 해석하였음.

이 온다. 그 성질이 밝아서 물물을 분별한다. 그 소리는 마치 돼지가 갑자기 놀라는 것<sup>22)</sup>과 같아서 펄침을 주로 한다. 치는 무에서부터 나와서 유를 징험하니 일의 상으로서 족히 물을 완성할 수 있다. 그 소리는 의의희희[倚倚噦噦]하여, 조화를 이루면 온갖 물물이 합당해지고 어지러우면 이어져온 성과가 무너진다. 그 실의 수는 오십사이고 삼분익일하여 위로 상성을 생한다.

하늘이 내려주는 복은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 사람의 도움은 情에 치우쳐서 나타나지만 하늘이 내려주는 복은 공평하며 원리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공평하고 근원적인 복을 받았을 때 만물은 비로소 성대해지고 번성해진다. 이와 같이 하늘의 복이 공평하고 합당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이 밝아서 物物을 辨別하는데 정확하고 분명해야 한다<sup>23)</sup>. 無에서 나와서 有를 징험한다는 것은 하늘의 복이 보이지 않는 德에서 시작하여 중국에는 有形的 物的인 것을 내려주는 데까지 미침을 말한 것이다. 즉, 하늘의 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 物로 완성되는 것이므로 成物이라 하였다<sup>24)</sup>.

소리의 형상은 돼지가 놀람을 당해 나누어 흠여지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며, 倚噦도 탄성의 소리로서 마치 足太陽膀胱經의 謔諳穴의 명칭과 비슷하다. 즉, 통증의 소리이기는 하지만 시원하며 기뻐하는 소리

에 가깝다. 놀란 돼지의 울음소리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았다<sup>25)</sup>. 微聲으로 인하여 조화를 이루면 모든 사물이 완성되어 본래의 제 모습을 찾게 될 것이요<sup>26)</sup>, 어지러워진다면 의욕만 앞서서 일을 벌리기만 하여 그 동안 이어져온 모든 無形의 공로[績]들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였다.

『黃帝內經陰陽應象大論』의 주석에서 王冰은 “微謂火音，和而美也。樂記曰微亂則哀其事勤”<sup>27)</sup>라 하여 조화를 이루면서도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밖으로 기운이 왕성하게 드러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樂記』의 말을 인용하여 微聲이 어지러워질 경우에는 일이 안타깝게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고 따라서 고달프고 힘들어질 것이라 하였다. 馬蒔는 『黃帝內經六元正紀大論』의 주석에서 “微，止也。言物盛則止。”<sup>28)</sup>라 하였는데, 물이 성해지면 오히려 안으로는 기운이 다하고 변화가 멈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변화가 그침[止]으로 인하여 物物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商，章也，物成熟，可章度也。其性方。其聲若羊之離群而主張，商有爲而通物，臣之象也，足以治民。其聲鏘鏘鎗鎗然，調則刑法不作威令行，亂則其官毀。其絲數七十二，三分損一下生羽。

[解釋] 상은 장이다. 물이 성숙하면 가히 드러나 틀을 갖출 수 있다. 그 성질은 반듯하고 그 소리는 마치 양이 무리로부터 떠난 것과 같아서 펄침을 주로 한다. 상은 실행에 옮기여 물물을 잘 쓰이게 하니 신하의 상으로서 족히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다. 그 소리는 깹깹 쟁쟁[鏘鏘鎗鎗]하여, 조화를 이루면 형법을 만들지 않고 위엄과 명령만으로 행할 수 있고, 어지러우면 그 궁실이 무너진다. 그 실의 수는 칠십이며 삼분손일하여 아래로 우성을 생한다.

22) 負는 ‘답당하다’ 또는 ‘짐을 지다’는 뜻임. 즉, 負駭는 갑자기 놀람을 당하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말함. 『국역악학궤범』(민족문화추진회, 서울, 민문고, 1967, p.46.)에서는 『管子』의 “負猪豕覺而駭”를 인용하여 ‘달아맨 돼지’로 해석하였다.

23) 밝음으로써 物物을 辨別하는 것은 物性의 근본을 파악하는 것이며 물성을 길러주는 것과는 다르다. 『東醫壽世保元』의 四象 관점에서 본다면, 本性에 대한 파악은 우선 원리에 밝아야 하므로[明] 事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은 四象人 중 太陽人과 관련이 있다. 임금이 바로 마음을 事에 근본하고 明을 발하면 臣이 이를 실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辨物하게 된다. 만약 辨物을 하는 과정에서 物物 간의 品別을 한다면 이는 少陽人이 世습을 눈으로 봄으로써 度量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物性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物物을 윤택하게 길러주는 역할은 物性에 대한 친화력의 本性이 강한 少陰人이 하게 된다.

24) 事와 物은 사람의 心身과는 달리 객관적 세계 운동 변화의 시작과 끝이므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5) 『신역악학궤범』(이혜구, 서울, 국립국악원, 2000, p.64.)에서는 돼지 울음소리를 형용한 것이라 하였으나 놀랐을 때의 탄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26) 本性으로 회복하는 것을 理라고 표현하였다.

27) 金達鎗. 補注注解素問(上). 서울, 의성당, 2001, p.124.

28) 馬元臺,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p.551.

商聲을 章이라 하였는데 章은 法式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sup>29)</sup>. 또한 物이 성숙한 것이라 하였다. 徵聲에서 物이 완성되는 것과 商聲에서 物이 성숙되는 것은 의미가 서로 다르다. 物이 제 모습을 갖추고 나서 변화가 시작한 후에,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는 氣의 교류를 겪은 다음에 비로소 성숙하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정해진 틀을 갖추게 된다[章度]는 것이다. 사람에게 비유를 한다면 중년 이후에 성숙하면서 자신만의 틀을 갖추어 유지해나가는 것과 같다<sup>30)</sup>. “有爲而通物”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物物이 완성된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인가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物物을 便通하여 그 원래의 쓸모에 맞게 활용하는 것을 말하니 이와 같이 성숙된 경지를 知行合一이라 할 수 있다.

신하의 象이라는 것도 단순히 위사람의 명령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事物과 百姓의 本性을 잘 파악하여 그 쓰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며, 때로는 임금에게 간언하여 임금이 현실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원리에 치중하거나 태만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1)</sup>. 이와 같이 신하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였을 때 죽히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다. 商聲이 조화를 이루면 刑法을 짓지 않고도 威嚴과 命수만으로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엄을 통하여 정치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어지러워지면 宮이 훼손된다고 하였는데 宮은 임금이 거처하는 자리로서 가장 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자리부터 무너진다는 의미이다.

商聲의 형상은 양이 무리를 떠나서 홀로 있을 때<sup>32)</sup>

29) 彰과 의미가 비슷하며 드러난다는 뜻이다. 또한 밖으로 바르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안으로 정해진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잘 갖추어진 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30) 40세를 不惑 또는 不動心의 나이로 보며, 50세를 知天命이라 하는데 心身이 함께 성숙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말한다.  
31) 신하인 동시에 간언을 통하여 임금을 인도하는 스승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32) 羊은 무리를 이루어 다니기를 좋아하므로 홀로 떨어진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 경우에 羊은 火의 陽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처지를 강하게 드러내려고 한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 내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돼지 울음소리도 놀라서 밖으로 드러나는 소리지만 그것은 흠어지기만 할 뿐이며[主分], 홀로된 양의 울음소리는 張이라 하여 활시위를 당기는 것처럼 끈게 벌어지는 소리이니 그 속에는 긴장감이 들어있다. 즉 이때 양의 울음소리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여 비교적 뚜렷하게 들리는 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리가 鏘鏘鎗鎗하다고 하였는데 鏘은<sup>33)</sup> 금속이나 옥이 부딪히는 소리로서 맑고 높은 소리이며 鎗은<sup>34)</sup> 역시 종소리를 말한다.

『黃帝內經陰陽應象大論』의 주석에서 王冰은 “商謂金聲, 輕而勁也. 樂記曰商亂則破其宮壞.”<sup>35)</sup>라 하여 가벼우면서도 단단하다고 하였으며 『樂記』를 인용하여 商音이 어지러워질 경우 宮이 무너짐을 말하였다. 馬蒔도 『黃帝內經六元正紀大論』의 주석에서 “商, 強也. 謂金性之堅強.”<sup>36)</sup>라 하여 견고하면서도 강하다고 표현하였다.

羽, 宇也, 物聚藏, 宇覆之也. 其性潤而澤物. 其聲若馬之鳴野而主吐, 羽因時而翕<sup>37)</sup>張, 物之象也, 足以致用. 其聲詔詔<sup>38)</sup> 鏘<sup>39)</sup>其然, 調則倉廩實, 庶物備, 亂則其民憂, 其財匱. 其絲數四十八, 三分益一上生角.

[解釋] 우는 집이다. 물이 모여 갈무리 될 때 집이

33) 음이 ‘장’임.(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3447.)  
34) 음이 ‘쟁’임.(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3441.)  
35) 金達鎗. 補注注解素問(上). 서울. 의성당. 2001. p.128.  
36) 馬元臺,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p.551.  
37) 새가 펼쳤던 날개를 접는 것을 말함.(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2575.)  
38) 음은 ‘허’이나 본음은 ‘후’이며, ‘장답하다, 두루미치다’의 의미임.(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3041.) 깊은 곳에서 토해내는 것으로서 羽와 소리가 비슷하다.  
39) 원문에는 鏘로 되어 있으나 『국역악학계법』(민족문화추진회, 서울. 민문고. 1967. p.47.)에서는 이를 鏘로 보았다. 鏘는 ‘술주정하다’의 뜻으로(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3366.) 詔와 같은 발음을 띤 것으로 보이며 의미로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말한다.

그것을 덮어준다. 그 성질이 윤택하여 물물을 길러준다. 그 소리는 말이 들판에서 울부짖는 것과 같아서 토해내는 것을 주로 한다. 날개짓을 때에 맞추어 접었다 펼쳐지니 물의 상으로서 죽히 쓰임을 다하도록 한다. 그 소리가 후후[詡詡]하면서 그렇게 불어내는 데, 조화를 이루면 재물이 충실해져서 못 물물이 갖추어지고 어지러워지면 그 재물이 새나가게 된다. 그 실의 수는 사십팔이고 삼분익일하여 위로 각성을 생한다.

羽聲은 모든 사물이 편안히 자리 잡고 있는 집과 같다고 하였다. 物이 모여서 갈무리되면 宇가 그것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다. 그 성질은 윤택하여 만물을 길러주고 풍요롭게 해준다. 이와 같이 대상을 감싸주는 宇 자체가 바로 物의 象이기도 하다. 그 쓰임을 다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物物의 本性을 잘 길러줌으로써 타고난 고유의 쓰임을 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商聲의 신하가 物物을 便通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보면, 便通은 物을 사용하는 백성들에게 맞추어서 物을 通用하는 것으로서 物의 고유 本性을 일일이 살펴서 길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羽聲의 象은 집과 같이 物物을 잘 덮어주고 윤택하게 하여서 物物개개의 고유 本性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徵聲에서 明而辨物하는 것은 物物 사이의 편차를 분별해 내는 것으로 각각의 本性을 키워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소리는 말이 들판의 넓은 공간 속에서 울부짖는 것과 같이 소리를 토해내는 것이라 하였다. 소리가 밖으로 넓게 퍼져나가므로 陽氣가 발산되는 것과 비슷하지만,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토해내듯이 끌어올리므로 物物의 本性을 밖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낼수록 그 소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장대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을 詡詡라고 하였다. 『東武遺藁』에서 少陰人의 魄之爲氣를 “盛大而壯經營”이라 한 것과 의미가 비슷하다<sup>40)</sup>. 또한 詡

字도 넓게 감싸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羽聲이 조화를 이루면 창고가 가득 차서 부유해지고 소리가 어지러워지면 그 백성들이 불안해지며 재물이 없어진다<sup>41)</sup>고 하였다.

『黃帝內經陰陽應象大論』의 주석에서 王冰은 “羽謂水音, 沈而深也. 樂記曰羽亂則危其財匱.”<sup>42)</sup>라 하여 水音으로서 가라앉아서 깊은 곳에 있다고 하였으며, 馬蒔도 『黃帝內經六元正紀大論』의 주석에서 “羽, 舒也. 陽氣將復, 萬物孳育而舒生.”<sup>43)</sup>라 하여, 기운이 편안하면서도 陽氣가 장차 회복하는 형상이므로 陽氣가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고 말하였으며, 萬物을 자양하며 길러준다고 하여 物性에 미치는 특성을 표현하였다.

角, 觸也, 物觸而出, 戴芒角也. 其聲直. 其聲若雞之鳴木而主湧, 角善觸而難馭<sup>44)</sup>, 民之象也, 足以興事. 其聲啞啞<sup>45)</sup>確確<sup>46)</sup>然, 調則四民安, 亂則其民怨. 其絲數六十四, 而生變宮變徵<sup>47)</sup>也.

[解釋] 각은 닿는 것이다. 물이 닿아서 나올 때 그 끝이 가시처럼 뾰족한 것이다. 그 소리는 곧다. 그 소리가 마치 닭이 나무에서 우는 것과 같아서 용솟음을 주로 한다. 각은 늘 찌르려고(닿으려고) 하지만 좌지우지하기는 어려우니 백성들의 상으로서 죽히 일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소리가 악악 각각[啞確]하는데, 조화를 이루면 사방의 백성들이 편안하고 어지러우면 백성들이 원망한다. 그 실의 수는 육십사이며 변궁과 변치를 생한다.

41) 匱는 ‘빈다, 사라진다’ 또는 ‘무너진다’는 뜻임.(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435.)

42) 金達鎬, 補注注解素問(上), 서울, 의성당, 2001, p.130.

43) 馬元臺,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p.551.

44) 馭는 마부가 말을 모는 것으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함을 의미함.(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3721.)

45) ‘닭음음 소리, 억지로 웃는 모습’ 또는 ‘마음이 조급함’을 의미함.(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585.)

46) 본음은 ‘각’이며, 견고하고 단호함을 의미함.(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2257.)

47) 變宮과 變徵는 宮商角徵羽와 함께 七聲을 구성하는 음으로 서양음악의 7음계에 바로 해당한다. 變宮은 7음계의 마지막 음이며 變徵는 제4음이다.

40) 『東武遺稿海東本』(송일병 외 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東武遺稿海東本,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7, p.13.)에서 “聲之精海, 魄之所舍也, 魄之爲氣, 盛大而壯經營自有方略, 則此句之論, 少陰人言而特學太陽人言者, 蓋太陽生少陰而恃其子魄故也.”라 하였다.

角은 뿔로서 끝이 닿는 것이다. 즉, 物物이 끝을 내밀고 나올 때 그 끝에 까끄라기(가시)나 뿔이 나와 있는 것을 말한다. 뿔은 찌르기는 잘 하는데 마음대로 부리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백성의象이라고 하였다. 즉, 뿔은 아주 거칠지도 않지만 동시에 부드럽지도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이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으니 백성들의 마음도 이와 같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興起시켜서 일을 시행해야 하는데 角聲으로 初發心을 여럿이 함께 일으키면 그것이 중국에는 일의 완성으로 귀결된다<sup>48)</sup>. 마치 싹이 터져서 나올 때와 같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흥을 일으키면 저절로 조화를 맞추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角聲으로 조화를 이루면 사방의 백성들이 함께 大同하여 편안해지지만 어지러워지면 서로 뿔을 세워서 원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 소리는 닭이 나무위에서 우는 것과 같이 단박에 솟아 나온다고 하였으며 그 형상이 喔喔確確하다고 하였는데, 소리가 잠시 끊어져서 모아졌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오는 형상이다. 商聲에서 主張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角聲은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퍼지는 것이며 商聲은 지속적으로 곧고 길게 뻗어나는 소리이다.

『黃帝內經陰陽應象大論』의 주석에서 王冰은 “角謂木音, 調而直也. 樂記曰角亂則憂其民怨”<sup>49)</sup>라 하여 陰陽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곧다고 하였으며, 馬蒔도 『黃帝內經六元正紀大論』의 주석에서 “角, 觸也. 象諸陽氣觸動而生.”<sup>50)</sup>이라 하여 陽氣가 바야흐로 觸動하는象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宮, 徵, 商, 羽, 角에 각각 순서대로 君, 事, 身, 物, 民이 배속되어 있다. 『禮記樂記』에서 “宮爲君, 商爲臣, 角爲民, 徵爲事, 羽爲物.”<sup>51)</sup>이라 하였고 주석에서 “宮絃最大用八十一絲, 聲重而尊, 故爲君. 商屬金 金爲決斷 臣事也 絃用七十二

絲 次宮 如臣次君者也. 角, 觸也. 物觸地而出, 戴芒角也. 絃用六十四絲, 聲居宮羽之中, 屬木, 以其清濁中民之象也. 徵屬夏, 夏時正長萬物皆成形體, 事亦有體, 故配事. 絃用五十四絲. 羽爲水聚清物之象, 故爲物. 絃用四十八絲.(宮音의 현은 최대 81絲를 쓴다. 소리가 무겁고 존귀하므로 임금의 된다. 商音은 金에 속하여 金은 결단을 행하니 바로 신하의 일이다. 현은 72絲를 쓴다. 宮音 다음이니 신하가 임금 다음인 것과 같다. 角音은 찌르는 것이니 물이 땅을 뚫고 나올 때 머리에 가시나 뿔이 있는 것과 같다. 현은 64絲를 쓴다. 소리가 宮音과 羽音의 가운데 있고 木에 속하여 清濁의 중간으로서 백성의象을 가지고 있다. 徵音은 여름에 속하니 여름철에는 바르게 자라서 만물이 모두 형체를 만드는데 일도 또한 비로소 형체를 가지게 되므로 일에 응한다. 현은 54絲를 쓴다. 羽音은 물이 모여 事物을 맑게 하는 상이므로 物이 된다. 현은 48絲를 쓴다.)<sup>52)</sup>라 하였다. 宮音은 土德을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德을 베푸는 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임금이 배속하였으며, 商音은 內外로 成熟하여 위로는 임금의 명을 잘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象을 가지고 있으며, 政치를 집행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는 신하에 배속하였으며, 角音은 마음의 욕구를 발하면서도 흠어지지나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니 民草에 배속하였으며, 羽音은 萬物을 감싸고 덮어주어 物性을 潤澤하게 하므로 物에 배속하였으며, 徵聲은 일을 현실 속에 구현하기 위해 無에서 有를 창조해나가는 노력의象이므로 事에 배속하였다.

其用則爲敏經迭抑重. 其位則爲左右上下中. 其色則爲青黃赤白黑. 其性則爲仁義禮智信. 其情則爲喜怒哀悲憂恐. 其事則爲貌言視聽思. 其味則爲甘辛酸苦鹹. 其臭則爲香腥羶焦朽. 在天運而爲五氣, 在地列而爲五行, 在人竅而爲五臟, 則中聲所止, 無往不在焉.

48) 마음을 함께 일으켜 事가 通하고 事가 선도하여 物이 완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49) 金達鎬. 補注注解素問(上). 서울. 의성당. 2001. p.122.  
50) 馬元臺,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p.551.  
51) 富山房編輯部. 禮記. 東京. 富山房. 1913. 卷19 p.2.

52) 『孟子集註』(上)(金赫濟校閱. 서울. 명문당. 1983. p.75.)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음. 『孟子』중 “景公說, 大戒於國, 出舍於郊. 於是始興發補不足. 召大師曰 爲我作君臣相說之樂, 蓋徵招角招是也. 其詩曰 畜君何尤, 畜君者, 好君也.”에 대한 朱子의 주석에서 “樂有五聲, 三曰角爲民, 四曰徵爲事.”라 하여 배속을 설명하고 있음.

[解釋] 그 쓰임은 곧 敏, 經, 迭, 抑, 重이 되고, 그 자리는 곧 左, 右, 上, 下, 中央이 되고, 그 색은 곧 靑, 黃, 赤, 白, 黑이 되고, 그 본성은 곧 仁, 義, 禮, 智, 信이 되고, 그 감정은 곧 喜, 怒, 悲, 憂, 恐이 되고, 그 일은 곧 貌, 言, 視, 聽, 思가 되고, 그 맛은 곧 甘, 辛, 酸, 苦, 鹹이 되고, 그 냄새는 곧 香, 腥, 羶, 焦, 朽가 된다. 하늘에서는 돌아 다섯 기가 되고 땅에서는 별려서 오행이 되며 사람에게서는 기가 모여 오장이 되니 즉 바로 소리가 머무는 것이 가는 데마다 없는 곳이 없다.

여기서 그 쓰임을 보면 『爾雅』에서 “宮爲重, 商爲敏, 角爲經, 徵爲迭, 羽爲柳”<sup>53)</sup>라 하였는데, 『樂書·卷一百七』에는 “宮은 “其聲則和平厚重洪舒而最濁”, 商은 “其聲明以敏, 其和溫以斷”, 角은 “其聲防以約, 其和潔以淨”, 徵는 “其聲泛以疾, 其和平以切”, 羽는 “其聲散以虛, 其和短以抑”으로 되어 있으며<sup>54)</sup>, 『樂書·卷一百五』에는 순서대로 “重而尊”, “明而敏”, “經而易”, “泛而不流”, “渙散而抑”으로 되어 있다<sup>55)</sup>. 宮聲은 공통적으로 무겁고 두터우며 넓고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 가장 탁한 소리라고 하였다. 商聲은 밝으면서 민첩하고 조화를 이룰 때에는 온화하면서도 결단을 내리는象으로 표현하였다. 徵聲의 밝음이 物物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라면 商聲의 밝음은 민첩하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의미한다. 또한 민첩함은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徵聲에서 단순히 빠르게 피어나가는象과 차이가 있다. 온화하면서도 결단을 내리는 것은 지혜가 밝은 신하 즉 宰相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角聲은 기운이 곧아서 가로막으면서[防] 모여[約] 있어서 청렴하게 보이지만 유연함[易]을 갖추고 있다. 徵聲은 밖으로 기운이 넘쳐서 빠르게 피어나지만 방중으로 흐르지 않으니 안으로 안정되면서[平] 절제되어[切] 있기 때문이다. 羽聲은 흩어져 虛하며 조화를 이룰 때에는 짧게 가라앉아[抑] 있

다고 하였으나, 『爾雅』에서는 ‘柳’라 하여 부드럽고 유연함을 표현하고 있다.

樂書云, 二變出乎五聲而淫於五聲, 存之無益也, 削之可也. 蓋五聲之於樂, 猶五星之在天, 五行之在地, 五常之在人也. 五聲可益爲七音, 然則五聲五行五常亦可益而七之乎. 其說必不行矣.

[解釋] 악서에서 말하기를, 두 변성이 오성에서 나오지만 오성을 어지럽히니 두어도 보탬이 없으므로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대개 오성은 음악에 있어서, 마치 하늘에 오성이 있고 땅에 오행이 있으며 사람에게 오상<sup>56)</sup>이 있는 것과 같으니, 오성에 덧붙여 칠음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곧 오성, 오행, 오상도 또한 덧붙여 일곱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설명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sup>57)</sup>.

又云, 人感物以形聲, 聲本無而爲有. 故五聲之別, 宮爲上平聲, 商爲下平聲, 角爲入聲, 徵爲上聲, 羽爲去聲, 知此可與言聲律矣.

[解釋] 또한 이르기를 사람이 외물에 감응함으로써 소리가 만들어지니, 소리는 본디 없다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오성을 나누면 궁성은 위 평성이 되고 상성은 아래 평성이 되고 각성은 입성이 되고 치성은 상성이 되고 우성은 거성이 되니, 이를 알면 가히 함께 성과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角, 徵, 宮, 商, 羽를 五聲으로 보고 그 聲調를 풀어 놓은 것으로 平聲은 陽平과 陰平으로 나뉘는데 陰平이 현재의 1성이고 陽平이 현재의 2성이다. 宮과 商은 上下의 平聲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宮이 1성, 商이 2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角은 入聲으로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고대에 받침이 p, t, k로 나는 소리였다. 徵는 上聲인데 현재의 3성이며, 羽는 去聲으로 현재

56) 사람의 本性인 仁義禮智信을 말함.

57) 『신역악학개범』(이혜구. 서울. 국립국악원. 2000. p.9.)에서 “변치와 변궁의 사용을 이단시하고 신하와 백성이 입금을 능만하는 것, 즉 상과 각이 궁보다 낮게 되는 것을 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라고 『樂學軌範』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53) 周祖謨. 爾雅校箋. 雲南. 雲南人民出版社. 2004. p.73.

54) 國立國樂院. 樂書 韓國音樂學資料叢書(9). 서울. 國立國樂院. 1982. p.172-173.

55) 國立國樂院. 樂書 韓國音樂學資料叢書(9). 서울. 國立國樂院. 1982. p.166.

의 4성이자. 이 중에서 商聲을 2성으로 보는 이유는 宮聲은 평탄하게 전후가 고르게 높낮이가 유지되는데 비하여 商聲은 張하면서 위로 뜨는 듯한 느낌을 가지므로 2성으로 보았다. 角聲은 끊어지는 소리이므로 入聲이 타당하다. 徵聲은 원래 위로 흠어지므로 가볍게 올라가야 할 것으로 보이나, 속에서부터 밖으로 陽氣가 확산될 때 아래에서부터 힘으로써 밀고 올라오는 형상이므로 上聲 즉 3성으로 보는 것이다. 羽聲은 끝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므로 4성이 된다. 이상의 聲調는 소리의 높낮이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다음에 나오는 發聲 방법과 소리의 발생 위치와는 개념이 다르다.

又云, 聲出於脾, 合口而通之, 謂之宮. 出於肺, 開口而吐之, 謂之商. 出於肝, 而張齒湧<sup>58)</sup>吻, 謂之角. 出於心, 而齒合吻開, 謂之徵. 出於腎, 而齒開吻聚, 謂之羽.

[解釋] 또한 이르기를, 소리가 비장에서 나와 입을 닫고 통하는 것을 일러 궁성이라 한다. 폐에서 나와 입을 열고 토해내는 것을 일러 상성이라 한다. 간에서 나와 앞니를 크게 벌리고 입술을 밖으로 벌리는 것을 일러 각성이라 한다. 심에서 나와 앞니를 닫고 입술을 여는 것을 일러 치성이라 한다. 신에서 나와 앞니를 열고 입술을 모으는 것을 일러 우성이라 한다.

宮商角徵羽를 역시 五聲의 개념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것은 『樂學軌範』의 宮商角徵羽 설명 중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설명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즉, 사람의 發聲과 짐승의 울음소리를 비교하여 서로 비슷한 형상으로 배속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선 脾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면 “合口而通之”라 하였는데 앞부분에서는 “其聲若牛之鳴窳而主合”라 하였다. 이것은 입을 다물고 코의 비강으로만 숨이 통하게 하는 것으로 허밍이 바로 그것이다. 소의 굵고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집 밖이 아니라 움집 안에서 걸러서 나오는 것이므로 허밍과 비슷하게 들린다. 숨이라는 것은 닫힌 상태에서 나는 소리라는 의미인데,

58) 밖으로 소리를 토해내는 모습으로 입술을 벌리는 동작을 나타낸다.

이때의 숨은 閉나 封의 뜻이 아니다. 단지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萬物을 포용하려는 것을 말한다. 『訓民正音』중에서 ‘목구멍소리자[ㅇ, ㅎ 등]에 해당하는데 五行 중에 水에 배속되는 것으로 본다<sup>59)</sup>. 구조적으로 본다면 ‘입술소리자[ㅁ, ㅂ, ㅍ 등]가 土에 배속된다고 볼 수 있으나<sup>60)</sup> 發聲 과정으로 본다면 목구멍소리자가 주로 宮聲에 해당한다. 입술소리자는 구강을 넓혀서 숨을 많이 모았다가 입술을 순간적으로 터서 나오는 소리로서 울림이 강하므로 일부 宮聲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商聲은 肺에서 출하는데 “開口而吐之”라 하였고 짐승의 울음소리로는 “其聲若羊之離群而主張”라 하였다. 입을 열고 토해내는 것이 마치 홀로 떨어진 양의 울음소리와 같이 張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따는 羽聲에서 입술을 오므리고 내는 소리와는 달리 입을 완전히 열고서 밖으로 소리를 퍼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羽聲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토해내면서 發散을 조금 막는 것과 달리 商聲은 보다 얕은 곳에서부터 밖으로 소리는 뻗어 내보내는데 주목적이 있다. 『訓民正音』중에서 ‘어금니소리자[ㄱ, ㅋ 등]와 일부 비슷한데 五行 중에 木에 배속된 것으로 보았다<sup>61)</sup>. 어금니소리자는 주로 角聲에 해당하는데 商聲의 경우는 角聲보다 입을 덜 벌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이어지는 차이가 있다. ‘잇소리자[ㅅ, ㅆ, ㅈ 등]를 金에 배속하기도 하나<sup>62)</sup> 치아를 닫은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이므로 商聲과 다르다.

角聲은 “張齒湧吻”이라 하였고 앞에서는 “其聲若雞之鳴木而主湧”이라 하였다. 여기서 용솟음치는 것은

59) 金字篇. 訓民正音 글자 만든 원리(陰陽五行 原理)로 살펴본, 韓方病理 용어 痛病疼의 우리말 解釋에 관한 고찰.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3. 7. p.29.

60) ‘訓民正音 글자 만든 원리(陰陽五行 原理)로 살펴본, 韓方病理 용어 痛病疼의 우리말 解釋에 관한 고찰’(金字篇.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3. 7. p.30.)에서는 “운동면에서 목구멍 다음으로 수동적이어서 음식물을 씹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단지, 감싸줌으로써 새나가는 것을 막으니 陰중의 至陰이 되어 오행상 土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61) 金字篇. 訓民正音 글자 만든 원리(陰陽五行 原理)로 살펴본, 韓方病理 용어 痛病疼의 우리말 解釋에 관한 고찰.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3. 7. pp.29-30.

62) 金字篇. 訓民正音 글자 만든 원리(陰陽五行 原理)로 살펴본, 韓方病理 용어 痛病疼의 우리말 解釋에 관한 고찰.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3. 7. p.30.

샘물이 급하게 올라오는 것과 비슷한데 치아를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목의 얇은 곳에서만 소리가 걸렸다가 나오며, 깊은 곳에서 시작하지 않으므로 힘을 모으기 위해 조금씩 단절되어 끊어져서 나온다. 어금니 소리자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입술소리자도 입술을 단았다가 열면서 나오며, ‘혀소리자’[ㄴ, ㄷ, ㄸ 등]도 혀가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소리이므로 순간적으로 터져 나오는 형상으로 보았을 때 일부 角聲에 해당한다.

입을 여는 것과 치아를 벌리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宮聲과 商聲에는 입을 열고 단음으로써 전체적인 소리의 개함을 조절하였고, 角聲, 徵聲, 羽聲에서는 치아를 開合함으로써 속에서부터 소리가 순간적으로 발산되어 나올 때 그 치밀함의 농도를 조절하게 된다.

徵聲은 “齒合吻開”라 하였고 앞에서는 “其聲若豕之負駭而主分”이라 하였다. 치아를 닫은 상태에서 입술을 열어서 ‘치-’ 소리를 내는 것이다. 치아를 단음으로서 소리가 모이게 되고 입은 반대로 열어서 밖으로 기운이 확산되기 쉽게 만든다. 分散을 주관한다고 하여 소리가 강하게 퍼져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徵聲은 『訓民正音』 중에서 주로 ‘잇소리자’[ㅅ, ㅆ, ㅈ 등]에 해당한다. ‘혀소리자’[ㄴ, ㄷ, ㄸ 등]는 혀끝에서 나는 소리로서 臟腑 배속 상심이 관여한다고 보아 火에 배속하였으나<sup>63)</sup>, 구조적인 면이 아닌 소리 자체의 형상을 본다면 徵聲은 강하게 모아졌다가 발산되므로 단단한 치아 사이를 통하여 강하게 나오는 잇소리자가 오히려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羽聲은 “齒開吻聚”라 하였고 “其聲詭詭其然”라 하여 치아는 벌리고 입술은 모은 상태에서 ‘우-’라고 소리를 내는 것이다. 치아를 벌린 상태에서 목구멍 깊은 자리에서 숨을 가운데로 모을 수 있으니 소리의 밀도가 높아지며, 입술을 모으므로 완전히 기가 가볍게 분산되지 않고 천천히 나갈 수 있다. 똑같이 토해내는 소리이지만 角聲에서 치아를 張하는 것은 開보다 더 벌린 것으로 소리를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商聲도 角聲과 비슷한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다.

羽聲은 『訓民正音』 중에서 宮聲에서 설명한 ‘목구멍소리자’[ㅇ, ㅎ 등]에 가까우며 입술을 단았다가 열게 되면 ‘입술소리자’[ㅁ, ㅂ, ㅍ 등]와 비슷해진다.

### 3. 『類經圖翼·五音五行清濁圖』<sup>64)</sup>의 내용 분석

張介賓은 『類經圖翼』에서 五聲의 長短, 高低, 清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宮音, 五音之首, 其聲極長極下極濁.  
徵音宮所生, 其聲次短次高次清.  
商音徵所生, 其聲次長次下次濁.  
羽音商所生, 其聲極短極高極清.  
角音羽所生, 其聲在長短高下清濁之間.

[解釋] 궁음은 오음의 우두머리로서 그 소리가 가장 길고 가장 낮고 가장 탁하다. 치음은 궁음에서 나와 그 소리가 조금<sup>65)</sup> 짧고 조금 높고 조금 맑다. 상음은 치음에서 나와 그 소리가 조금 길고 조금 낮고 조금 탁하다. 우음은 상음에서 나와 그 소리가 가장 짧고 가장 높고 가장 맑다. 각음은 우음에서 나와 그 소리가 장단, 고하, 청탁의 중간에 있다.

『樂學軌範』에서 말한 宮, 徵, 商, 羽, 角의 발생 순서를 따르고 있다. 우선 宮聲을 보면 五音의 우두머리로서 그 소리가 가장 길고 가장 낮고 가장 탁하다고 하였다. 앞에서 宮聲을 1성으로 보았는데 여기서는 높낮이가 낮다고 하였다. 그러나 『樂學軌範』에서는 上平聲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기 낮다는 것은 반드시 음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아래에 위치하여 소리가 숨은 듯이 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탁하다는 것도 소리가 갈라져서 난다기 보다는 音色이 무게감을 가지고 重厚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徵聲은 조금 짧고 조금 높고 조금 맑다고 하였다. 앞에서 徵聲을 3성으로 보았는데 아래에서부터 힘을

63) 金字錦. 訓民正音 글자 만든 원리(陰陽五行 原理)로 살펴본, 韓方病理 용어 痛病疼의 우리말 解釋에 관한 고찰. 大韓原典醫學會誌. 1993. 7. p.30.

64)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대성문화사. 1982. p.252.

65) 次를 조금이라고 해석하였다.

모았다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금 높고 맑게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樂書券一百七』에서는 “其清踰於商”이라 하였는데<sup>66)</sup> 商音보다는 맑고 가장 맑은 羽音보다는 조금 탁하다. 길이는 약간 짧다고 하였는데, 소리가 높고 강하게 퍼져 나가므로 힘이 금방 다하게 되면 길이는 오히려 조금 짧은 듯이 느껴지게 된다.

商聲은 조금 길고 조금 낮으며 조금 탁하다고 하였다. 소리의 강도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으며, 낮고 탁하다는 것은 쇠소리가 갈라져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宮聲의 重厚한 느낌은 아니다. 『樂書券一百七』에서도 “其濁次乎宮”이라 하였다<sup>67)</sup>. 聲調에서는 2성에 해당하는데 비록 높은 쪽으로 올라가지만 소리가 긴장되어 급하게 나가는 것을 오히려 낮고 탁한 느낌으로 기술하였다.

羽聲은 가장 짧고 가장 높고 가장 맑다고 하였다. 『樂書券一百七』에서도 “其清踰於徵”라 하였다<sup>68)</sup>. 여기서 가장 높고 맑하다는 것은 羽聲의 맑고 투명함을 나타내는 것이다<sup>69)</sup>. 가장 짧다고 하는 것은 羽聲의 象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긴 쪽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단, 약하게 이어지면서 사라지는 것을 짧은 형상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소리가 흠어지는 象을 표현하였다.

角聲은 長短, 高下, 清濁의 사이에 있다고 하였다. 『樂書券一百七』에서도 “清而不皎, 濁而不溷”이라 하여<sup>70)</sup> 맑지만 뚜렷하지는 않고 흐리지만 뒤섞여 있지는 않다고 하였다. 같은 편에서 角聲을 “其聲防以約, 其和潔以淨”이라 하였는데 防以約은 淸을, 潔以淨은 濁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성이 중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樂學軌範』에서 主湧이라

한 것을 근거로 하여 용솟음쳐서 소리가 나올 때 여러 기운이 뒤섞여서 나오는 그 형상을 표현한 것으로 長短, 高低, 淸濁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음을 말해준다.

이상을 살펴보면, 張介賓이 말한 淸濁은 실제 음색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소리가 안으로 모이느냐 밖으로 흠어지느냐에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宮聲이 탁한 것은 기운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며, 徵聲이 맑은 것은 밖으로 분산되는 것을 나타내며, 商聲이 탁한 것은 소리가 순간적으로 모아져서 강해지는 것을 말하며, 羽聲이 맑은 것은 소리가 흠어지기 때문이다. 즉, 소리의 陰陽 운동 방향에 따라 淸濁을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 4. 『黃帝內經』에 나오는 呼笑歌哭呻의 五聲

우선 呼, 笑, 歌, 哭, 呻이 五行에 순서대로 배속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角, 徵, 宮, 商, 羽의 五音과 대응한다고 볼 수는 없다. 五聲을 분석하여 五音의 象에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呼는 木에 배속되어 있는데, 王冰은 “呼謂叫呼, 亦謂之嘯.”라 하였고 張介賓은 또한 “呼則叫呼”라 하였다. 呼라는 것은 밖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樂學軌範』에서 말한 五聲의 성질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이 중에서 羽聲, 商聲, 角聲이 여기에 해당하고 徵聲도 일부 해당한다. 그 차이점을 보면 角聲은 얇은 곳에서부터 소리가 용솟음치면서 뒤섞여서 나오는 것이며, 商聲은 그 다음이고 羽聲이 비교적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徵聲도 궁극적으로 흠어지는[主分] 소리인데 단 목구멍 속에서부터 소리가 꼬집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치아를 단음으로써 소리를 모았다가 분산시키는 것이다.

笑에 대하여 王冰은 “笑, 喜聲也.”이라 하였고 張介賓은 “喜則發笑, 心之聲也.”라 하였다. 기뻐하는 마음이 소리로 표현된 것이며 기운이 화창하게 퍼져 나가는 형상이다. 五音 중에서는 宮聲, 그리고 徵聲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宮聲은 임금의 象으로 調和를 이루면서 暢達하는 소리이므로 바로 웃음소리에 해

66) 國立國樂院. 樂書 韓國音樂學資料叢書(9). 서울. 國立國樂院. 1982. p.172.

67) 國立國樂院. 樂書 韓國音樂學資料叢書(9). 서울. 國立國樂院. 1982. p.172.

68) 國立國樂院. 樂書 韓國音樂學資料叢書(9). 서울. 國立國樂院. 1982. p.172.

69) 太陽寒水の 상과 비슷하다. 太陽은 氣가 확산되면서 맑고 순수한 상태가 된 것이며 寒水는 안으로 견고하게 陽氣를 함축하고 있는 象이다.

70) 國立國樂院. 樂書 韓國音樂學資料叢書(9). 서울. 國立國樂院. 1982. p.172.

당한다. 微聲도 소리가 분산되면서 마치 탄성을 지르는 것[倚巖]과 같으므로 笑에 해당하지만 단, 화창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격하게 나오는 소리이므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歌에 대하여 王氷은 “歌, 歎聲也.”라 하였고 張介賓은 “得意則歌, 脾之聲也.”라 하였다. 즉, 歌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서 곧 詩에 해당한다. 張介賓은 『類經圖翼 五音五行清濁圖』에서 “樂者, 天地之和氣也. 律呂者, 樂之聲音也. 蓋人有性情則有詩辭. 有詩辭則有歌詠. 歌詠生則被之五音而爲樂. 音樂生必調之律呂而和聲.(樂은 천지가 조화를 이룬 기운이다. 律呂는 음악의 聲音이다. 대개 사람에게 性情이 있으면 詩辭가 만들어지고, 詩辭가 있으면 노래가 만들어지고, 노래가 만들어지면 五音으로 구성되어 음악이 되며, 음악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律呂를 조절하여 여러 소리를 화합한다.)”<sup>71)</sup>이라 하여 사람의 性情이 자연스럽게 가사를 만들고 가사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五音이 붙어서 音樂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歌인데 의미가 깊어지고 강해질수록 敘事 형식의 詩歌에 가까워진다.

五音 중에서 歌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은 宮聲과 商聲, 그리고 羽聲의 일부가 해당된다. 宮聲과 商聲은 君臣 관계로서 治國平天下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律呂에 가사를 담아야 하며<sup>72)</sup>, 羽聲은 物性を 상징하는데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굳건한 친화력을 살려서 의지와 방향을 견지해 나가야 하므로 그 특성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哭에 대하여 王氷은 “哭, 哀聲也.”라 하였고 張介賓은 “悲哀則哭, 肺之聲也.”이라 하였다. 『黃帝內經』에서 말한 “悲哀動中”하여 나오는 소리인데 깊숙이 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動하여 나오는 소리이며 강도는 크게 강하지 않다. 五音 중에서는 角聲과 商聲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角聲은 짧게 끊어지는 부분에서 기운이 잠시 끊어졌다가 나오며, 商聲은 소리를 뺏어내기 위하여[主張] 안으로 밀도를 높

이게 된다. 정확한 哭聲은 角聲과 商聲이 같이 혼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게 위하여 강하지는 않으나 밀도를 높이며[商聲] 그것을 발할 때에는 끊어서 악센트를 주게 되기[角聲] 때문이다.

呻에 대하여 王氷은 “呻, 吟聲也.”이라 하였고, 張介賓은 “氣鬱則呻吟, 腎之聲也.”이라 하였다. 신음 소리는 기운이 단힌 상태에서 조금씩 참으면서 새어나오는 소리이다. 五音 중에서는 宮聲과 羽聲이 여기에 해당하며 微聲의 일부가 이러한 성질을 지닌다. 宮聲은 입을 닫은 상태에서 허밍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즐거운 상태가 아니라 괴롭고 참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신음 소리가 된다. 羽聲은 치아는 벌리지만 입술을 오므리게 되어 있으므로 역시 기운을 천천히 내보내기 위하여 조절하는 것이며, 微聲은 치아를 닫는 과정에서音を 강하게 내보내기 위해 반동으로 안으로 억제하는 과정이 나타나므로 일부의 성질이 呻에 해당하는 것이다.

### III. 결론

宮商角徵羽의 五音은 원래 音의 象을 표현한 것으로서 가장 원초적인 소리인 聲을 더욱 정형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樂學軌範』에서는 宮商角徵羽 五音을 五聲으로 보고 그 형상을 묘사하였고, 그것을 다섯 가축의 울음소리에 비유하였으며 다시 사람의 發聲 과정에 적용하였다.

五聲의 비유에서 宮은 君, 商은 臣, 角은 民, 徵는 事, 羽는 物에 배속하여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였으며 五聲이 조화를 이룰 경우와 어지러워질 경우를 나누어서 그 결과를 비유로서 기술하였다. 宮音은 土德을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德을 베푸는 임금의 상을 가지고 있으며, 商音은 內外로 成熟하여 위로는 임금의 명을 잘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신하의 象을 가지고 있으며, 角音은 마음의 욕구를 발하면서도 흠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니 民草의 象을 가지고 있으며, 徵聲은 일을 현실 속에 구현하기 위해 無에서 有

71)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대성문화사. 1982. p.252.

72) 音樂은 인간의 心性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백성을 教化하고 나라는 다스리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였다.

를 창조해나가는 노력의 象이므로 事의 象으로 설명하였으며, 羽音은 萬物을 감싸고 덮어주어 物性を 潤澤하게 하므로 物에 배속하였다.

또한, 音色과 聲調의 설명에서는 宮聲은 공통적으로 무겁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商聲은 밝으면서 민첩하고 온화하면서도 결단을 내리는 象으로 표현하고, 角聲은 기운이 곧아서 가로막으면서[防] 모여[約] 있어서 청렴하게 보이지만 유연함[易]을 갖추고 있으며, 徵聲은 밖으로 기운이 넘쳐서 빠르게 퍼지지만 안으로 안정되면서[平] 절제되어[切] 있고, 羽聲은 흠어져 虛하며 조화를 이룰 때에는 짧게 가라앉아[抑] 있다고 하였다. 높낮이의 聲調에 대해서는 宮聲과 商聲은 上下의 平聲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宮聲이 지금의 1성, 商聲이 2성으로 볼 수 있으며, 角은 入聲으로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徵聲은 上聲인데 현재의 3성이며, 羽는 去聲으로 현재의 4성에 해당한다.

동물의 울음소리에 비유하여 宮聲은 “슴口而通之”, “其聲若牛之鳴窸而主合”라 하여 소의 울음소리와 같이 입을 다물고 코의 비강으로만 숨이 통하게 하는 허밍을 말하며, 商聲은 “開口而吐之”, “其聲若羊之離群而主張”라 하여 입을 열고 토해내는 것이 마치 홀로 떨어진 양의 울음소리와 같이 소리가 뻗어나가는 것이라 하였으며, 角聲은 “而張齒湧吻”, “其聲若雞之鳴木而主湧”이라 하여 샘물이 용솨음치듯이 급하게 올라오는 것과 같이 치아를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목의 앞은 곳에서만 소리가 걸렸다가 나오는 것으로 보았으며, 徵聲은 “而齒合吻開”, “其聲若豕之負駭而主分”이라 하여 입술은 벌리고 치아를 닫은 상태에서 分散하는 소리라고 하였으며, 羽聲은 “而齒開吻聚”, “其聲詡詡其然”라 하여 치아는 벌리고 입술은 모은 상태에서 목구멍 깊은 자리에서 숨을 가운데로 모아 내는 소리로 보았다.

張介賓의 『類經圖翼·五音五行清濁圖』에서는 五聲의 長短, 高低, 清濁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대체적으로 五聲의 성질과 일치하나 清濁에 있어서는 실제 음색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소리가 안으로 모이느냐 밖으로 흠어지느냐의 陰陽 운동 방향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黃帝內經』에 나오

는 呼笑歌哭呻의 五聲의 특성을 살펴보면, 呼는 木에 배속되어 羽聲, 商聲, 角聲 그리고 徵聲의 일부가 해당하며, 笑에는 宮聲 그리고 徵聲의 일부가 해당하며, 歌에는 宮聲과 商聲, 그리고 羽聲의 일부가 해당하며, 哭에는 角聲과 商聲이 해당하며, 呻에는 宮聲, 羽聲 그리고 徵聲의 일부 해당한다. 呼笑歌哭呻의 五聲은 원초적인 소리이므로 이를 분화 발달된 音聲의 象과 發聲法으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일대일로 되지 않고 그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글에서는 『黃帝內經』 및 주석서, 『樂學軌範』 등에 기술되어 있는 五音 또는 五聲에 대한 象을 분석 고찰해 봄으로써 각 소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느낌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옛 사람들의 인식을 토대로 하여 音聲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느낌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을 때 마음과 마음 사이에 통하고자 하는 音樂 본연의 의미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이며,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가깝게는 치료의 방편으로서 멀게는 서로가 和合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논문」

1. 金宇鎬. 訓民正音 글자 만든 원리(陰陽五行 原理)로 살펴본, 韓方病理 용어 痛病疼의 우리말 解釋에 관한 고찰.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3. p.7. 29, 30.
2. 李承鉉, 白上龍. 三陰三陽과 律呂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大韓原典醫史學會誌. 2002. 15(2). pp.67-84.
3. 李承鉉, 白上龍. 生命律動과 聲音의 관계에 대한 연구.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 2002. 8(1). pp.27-43.

「단행본」

1. 國立國樂院. 樂書 韓國音樂學資料叢書. 서울. 國立國樂院. 1982. p.166, 172, 173.
2. 金達鎬. 補注注解素問(上). 서울. 의성당. 2001.

- p.122, 124, 126, 128, 130.
3. 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74, 75, 188.
  4. 馬元臺,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p.551.
  5.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악학궤범. 서울. 민문고. 1967. p.46, 47.
  6. 富山房編輯部. 禮記. 東京. 富山房. 1913. 卷19  
p.1, 2.
  7. 송일병 외 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7. 東武遺稿海東本 p.13.
  8. 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435, 585, 2257, 2270, 2340, 2517, 2575, 3041, 3366, 3441, 3447, 3721.
  9. 이혜구. 신역악학궤범. 서울. 국립국악원. 2000.  
p.7, 8, 9, 64, 971.
  10.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대성문화사. 1982.  
p.252.
  11. 周祖謨. 爾雅校箋. 雲南. 雲南人民出版社. 2004.  
p.73.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1.

